



東萊

부산동래로타리클럽

WEEKLY BULLETIN THE ROTARY CLUB OF PUSAN DONGRAE

RI 會長 講話

“로타리를 경축하자”



CELEBRATE ROTARY

100 years

Glenn Estess, sr.

2004-05 ROTARY International President

RI 會長

글렌 E. 에스테스, Sr

3660 地區 總裁

春秋 金昌局

會 長 :	金 泰 潤
次 期 會 長 :	李 圭 玄
副 會 長 :	林 奉 圭
總 務 :	尹 聖 國
財 務 :	康 璜 碩
클 럽 奉 仕 :	姜 玟 奎
職 業 奉 仕 :	金 昌 煥
社 會 奉 仕 :	柳 根 洙
國 際 奉 仕 :	金 亨 祐
理 事 :	金 鍾 奎
週 報 :	崔 柱 銖
司 察 :	李 洙 鉉

* 週會場 : 허심청 2층 사파이어 룸(水)

* 事務局 : 釜山 東萊區 壽安洞503(壽安B/D103號)

TEL.(051)555-3703 FAX.(051)556-0185

♣ 100주년 맞는 지구촌 로타리 ♣

【 호주/뉴질랜드 】

- * 호주/뉴질랜드(2004. 10. 31. 현재) * 클럽: 1,491개
- * 회원: 4만 6,583명 * 최초클럽: 호주 멜버른(1921)
- * 남반구 최대의 꽃 축제인 Ellerslie Flower Show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RC에 의해 시작되었다.

15년 전 Aleeta Dawes는 많은 호주 원주민들이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이 안타까웠다. 이제 몇 년 후엔 이 라라키(Larrakia)족 여성도 의사가 된다. 이는 호주 원주민들이 원주민 마을에 부족한 의료인을 양성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정한 장학금의 덕택인데, 장학금에는 오직 한 가지, 원주민을 위한 의료 봉사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원주민 의과대학 장학금 프로그램은 남부의 Mitchim과 Unley 로타리클럽들에 의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2000년 2명의 학생으로 출발한 이 프로그램이 작년에는 전국적인 차원으로 확대되어 산과학에서 족병학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는 50여명의 의과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하였다. 일선 로타리안들은 이들을 집에 초대하거나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면서 가깝게 지내고 있다. 로타리안 Bailey는 "원주민 친구들은 우리가 자신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고맙다고 합니다. 그 차이는 큼니다"라고 말한다.

이 프로그램은 호주 로타리안들의 전형적인 봉사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실천하는 봉사, 지역사회에 바탕을 둔 봉사이다. 라일라(RYLA)도 40여년 전에 있었던 퀸즈랜드주 청소년을 위한 호주의 지역 축제에서 유래했다. 로타리안의 손길을 Aleeta가 살았던 북쪽 끝에서 지금 있는 멜버른의 다윈병원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400만 호주 달러를 투여하여 중앙학 연구소 및 한자와 가족을 위한 숙박 시설을 다윈병원에 짓고 있는 호주 로타리안들은 국경을 넘어 남태평양과 동남아시아에도 봉사의 손길을 뻗고 있다.

♥ 럭티다이 ♥



KR獎學金 受與 KR 獎學金 受與 스피치에 感謝 碩士學位 祝賀

◎ 野外週會 案內 ◎

화사한 봄 3월을 맞이하여 클럽에서 야외주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가족동반으로 등산 및 친목도모를 하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日時 : 3월 26日(土)~27日(日) 양일간 【 家族同伴 】

集結 : 3월 26日(土) 13:30 허심청 앞 출발

코스 : 우주구천동 백련사(왕복 3시간 정도, 완만한 코스)

會費 : 會員 5萬원, 家族 2萬원

◆ 클럽獎學委員會 獎學金 支給 豫告 ◆

日時 : 2005年 3月 16日(水) 12:30 / 場所 : 허심청 사파이어룸

2005年度 1/4分期 獎學金 支給(家計困難 高等學生 6名)

- * 동래여자고등학교 채미란 * 동래고등학교 서명서
- * 화명고등학교 박혜진 * 동의공고등학교 이재현
- * 서부산공업고등학교 오세훈 * 금정여자고등학교 박수진

◆ 다음 週會 案內 ◆

會員스피치

3月 16日 (水) 12:30
허심청 2층 사파이어룸



韓國로타리 獎學文化財團
2005年度 上半期 獎學金 支給

- * 영산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
2학년 호양 두언 민 100만원
- * 경남정보대학 디지털 디자인계열
2학년 이주경 100만원



印度旅行스피치 하시는 芸堂 前會長



2個月(1-2月) 100% 出席會員 祝賀

- 1班(95%) : 趙炳珠, 尹起鎬, 丁石根, 鄭大基 / 2班(54%) / 3班(51%) :
秋武鎬 / 4班(81%) : 金 均 / 5班(90%) : 金泰潤, 李圭玄, 柳根洩 /
6班(69%) : 崔柱銖, 金鍾奎, 徐聖斌, 金昌煥 7班(36%) / 8班(52%) :
尹聖國 / 9班(67%) : 李彤均 / 10班(73%) : 成勳燮, 金鍾德, 林奉圭

~ 祝賀합니다 ~

◎ 出席優秀班 : 1班 (廷岩, 有泉, 云谷, 汝竹, 白玲, 龜亨)

♣ 3月 週會案內 ♣

- 3/ 2 生辰會員祝賀 3/ 9 會員스피치 3/16 會員스피치
3/26.7 野外週會(우주) 3/23 休會 3/30 休會

◎ 週會奉仕金 : 80,000원 ◎

- 金鍾奎 印度旅行 스피치 感謝 2萬圓
殷鐘均 李在寅 會員날개 祝賀 1萬圓
李在寅 碩士學位 받음에 感謝 5萬圓

☞ Best & Best - 실패하는 사람들의 습관 ☞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인 습관이 있듯 실패하는 사람들 역시 그러하다.
먼저 실패하는 사람들은 '오늘'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오늘 하루를 대충 보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제의 오늘, 오늘의 오늘, 내일의 오늘 모두가 별반 중요하지 않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모두를 그렇게 어영부영 보내는 사람에게 어찌 성공이라는 행운이 뒤따를 수 있을까? 모름지기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첫째도 오늘이요, 둘째도 오늘이다.
둘째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남을 씌기만(?) 하지 정작 제 자신을 씌을 줄은 모른다. 남 잘못된 기막히게 타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자일 뿐이다. 생각해 보라.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고자 애쓰는 사람과 평생 제 어리석음을 모르는 사람 중에 과연 어떤 쪽에 성공의 빛이 내려 쬐 것인가? 성공이란 어둠을 뚫고 나와야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장렬한 태양이니라.

셋째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허황된 꿈만 꾀다. 실현 가능한 꿈을 향해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한 건 크게 하면'이란 전제를 달고는 매주 복권을 긁어대기에 바쁜 사람들이다. 감나무 아래 버려질 양 누워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려도 떨어지는 거라곤 다 써버린 감이다.
넷째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별반 변한 게 없다. 세월이 흐른 만큼 내실 있고 발전적인 모습이어야 하는데 똑같이 나태하고 무지한 채로 세월만 죽이려(?) 살아간다. 자기개발이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들에게 과연 성공이란 키워드를 논할 수 있을까?
다섯째, 실패하는 사람들은 '도전'이 아니라 '타협'과 '아부'에만 급급하다. 도전이란 더 큰 세상으로의 진입보이다. 더 나은, 더 드높은 세계로의 진입을 시도하기보다는 그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무마시킬 수 있을까만을 고민하는 이에게 어찌 성공의 여신이 손짓을 하겠는가? 당장의 타협과 아부가 '독'이 될 수 있지만 결국엔 내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밖에 없다. 도전할 줄 모르는 자, 타협과 아부에만 익숙한 자, 그들 모두에게 남는 것이라곤 실패자의 말로(末路) 일 뿐이다.

班	班長	班 員										%	
1班	趙炳珠	出	尹起鎬	出	朴東奎	免	丁石根	出	金東洙	M	鄭大基	出	100
2班	喪斗植		鄭東文	出	李洙銖	出	金榮杓	免	白宣基				60
3班	李圭烈		朴盛桓	出	秋武鎬	M	孫慶鎬	免	盧壽龍				60
4班	金性洙		韓正春	免	吉文甲	免	金 均	M	金岩又		崔洙驥		50
5班	殷鐘均	出	郭孝龍	免	金泰潤	出	李圭玄	出	鄭泰潤	出	柳根洩	出	100
6班	崔柱銖	M	金鍾奎	出	徐聖斌		金昌煥	出	孫克植		崔錫周		50
7班	趙正奎	出	韓常男		文鎧相		金亨祐	M	石亨均		金炳泰		33
8班	朴東元	出	尹聖國	出	姜鎭奎	出	全錫虎		吳龍俊		李南根	이동춘	43
9班	李彤均	出	康珉碩	出	安長鉉		李在寅	出	都在哲		朴相昱	曹麟鎬	43
10班	朴春培		成勳燮	出	金鍾德	出	林奉圭	M	金宋熙	免	趙祥欽	李成宰	57

總會員: 61 / 出席會員: 23 / 出席免除: 7 M: 6 / 平均出席率: 59 %